공정 선교의 모색

- 해외 선교 구조를 중심으로

이유진*

Ⅰ. 들어가며
Ⅱ. 한국 개신교의 해외선교에 대한 문제제기
Ⅲ. 한국 개신교의 해외 선교 구조개선
Ⅳ. 라틴아메리카 해방 신학의 관점에서 가능한 선교
Ⅴ. 나가며

Ⅰ. 들어가며

선교사 파송국의 일방적인 통계에 의한 파송 선교사 숫자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1] 그렇지만 유럽 중심의 역사쓰기에 '제국주의적 역사관'이라고 이름붙이고 있는 세계적인 관점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통계에만 근거해서 '선교 많이 하는 나라'라고 평가되고 있는 상황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해 내고 있는 미국 교회의 선교와 한국 교회의 선교를 비교해 볼 수 있다면, 한국이 선교사 파송 수로는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을지 몰라도, 파송된 선교사들의 선교지에서

*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박사과정

1) 김흥관, 「분당샘물교회 아프간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한국 교회의 선교적 과제」, 『신학 사상』, Vol. 145, 2009, 271쪽.

의 임기 기간에 관한 통계에 의하면, 과연 선교사 파송 숫자에 의지해 한국을 '선교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선교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의 해외선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 하나님나라의 핵심 담론인 '정의'의 관계가 한국 개신교의 해외 선교에서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국 개신교의 해외 선교에 대한 문제 제기

1990년부터 2년마다 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 현황을 선교사 파송기관, 선교단체,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해온 한국선교연구원(krim)[2]에 따르면, 한국 선교사 수는 지난 1979년 나일선 박사(Dr. Marlin Nelson)가 처음 조사했을 당시 93명에서 1990년 말 1,645명, 그리고 지난 2000년 말에는 8,103명으로 나타났다. 2002년 말엔 10,442명이었는데, 이는 개교회 파송 독립 선교사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이고 이중 멤버십을 제외한 숫자이다.[3] 2006년 말 현재 한국 선교사 1만4,905명이 168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한국은 국내외 타문화권 선교사 파송 기준으로 보면, 미국(6만4084명), 인도(4만6381명)에 이어 세계 3위이지만, 인도 선교사 대부분이 해외보다는 국내 거주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파송 선교사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미국에 이어 2위이다. 이어서 영국이 8,164명으로 4위, 캐나다가 7,001명으로 5위, 브라질이 5,801명으로 6위이다.[4] 한국보다 긴 개신교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인구수도

2) 한국해외선교회 GMF 산하에서 연구기관으로 시작한 한국선교연구원(krim-Korea Research Institute for Mission)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선교연구기관이다. 올해로 21주년을 맞는다.

3) 한국선교정보원, http://cafe.naver.com/kiimor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95&

훨씬 많은 미국과 인도의 상황을 고려해 위의 통계를 다시 이해한다면, 한국의 선교사 수는 세계 1위의 수준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해외 선교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선교를 계획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또, 한국 개신교의 사역에 균형을 잡아 물적, 영적 역량을 쏟아 붓기 위한 한 자료로 선교사 수의 통계는 필요하고 참고해야 할 가치가 충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신교 해외 선교의 계량적 통계를 지나치게 절대화하여 파송 선교사 수가 많은 것이 그만큼 선교를 많이 하거나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지 질문해 봐야 한다. 한국의 선교 역사는 19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7년 9월 17일 장로교 독노회가 조직되면서 최초로 안수 받은 목사 7인중 이기풍이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된 것을 시작으로, 1912년 한국 장로교회가 총회를 조직하고 중국 산동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데 이어 오늘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5] 일부 감리교 계통의 신학자들은 1902년, 미국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이주했던 인천 내리교회 교인들과 최초의 미주 노동이민자들과 동행했던 홍승하를 해외 선교의 시발점으로 보자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6] 한국 개신교의 해외 선교 역사가 100년쯤 되는 이 시점에서 그 간의 선교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한국 개신교의 해외 선교는 수적으로는 비길 데 없는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라크에서 죽음을 당한 김선일 사건이나 2007년 분당 샘물교회의 아프간 사건 등의 사회적 이슈를 남기며, 크고 작은 문제점들 또한 야기하였고, 이대로 해외 선교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한국 개신교의 해외 선교에 대해 김홍관은 경쟁적인 개교회

4) 한국선교연구원 홈페이지, http://krim.org/2010/sub5-broad.html
5) 기독일보, http://dc.christianitydaily.com/view.htm?code=oc&id=184713
6) 김상근,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어디로 갈 것인가?」, 『대학과 선교』, 제13집, 2007.

주의 선교였고, 배타적인 회심주의 선교였으며, 공격적인 제국주의 선교였다고 지적한다.[7]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는 숫자 놀이와 경쟁심에서 빨리 해방되어야 한다고 감상근은 역설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세계 1위,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좋아하는 것은 문화적 열등감의 표현일 뿐이라고 했다.[8]

또한, 한국이 세계 2위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을지라도 그 임기를 보면 그리 길지 않음도 문제이다. 한국선교연구원이 2007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도 탈락하고 있는 선교사 숫자에 대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파송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있었던 임기를 비교하면, 4년 이하의 기간이 가장 많은 29%였고, 4-8년이 25%, 8-12년이 22.3%, 12-16년이 15.2%, 16년 이상은 8.3%를 나타냈다. 문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1992-1994년 사이에 700개의 가정이 파송되었는데 150개의 가정(21.4%)이 중도 사임했고, 이 중에 99개 가정(14%)은 중도 탈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9] 결국, 8년 이하로 선교를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반을 넘은 54%나 되었다. 이들은 1-2년의 단기선교가 아닌, 파송 전 유언장을 쓰고 평생을 선교지에서 헌신할 것을 결심한 이들이기에 더 충격적이다. 이 통계 숫자를 통해, 선교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다른 문제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강승삼은 브라이얼리(Brierley)의 말을 빌려, 선교사의 중도 탈락이 선교사의 자질 및 영성과 관련 있다고 보았다. 즉, 선교사의 소명 결여, 헌신 부족, 파송기관과의 불화, 선교훈련 부족, 가정불화, 부도덕한 생활 양태, 언어 문제, 신학적인 문제 등의 요인을 열거했다.[10] 어떤 문제가 생겼

---

7) 김홍관, 「분당샘물교회 아프간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한국 교회의 선교적 과제」, 『신학사상』, Vol.145, No.-2009.
8) 김상근,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어디로 갈 것인가?」, 『대학과 선교』, 제13집, 2007.
9) 강승삼, 『21세기 선교 길라잡이』, 생명의말씀사, 1998, 78쪽.
10) 윗글, 54쪽.

을 때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고, 더구나 해외 선교의 경우는 자국만이 아닌 타국, 즉 선교지와의 국제 정세 뿐 아니라 타문화라는 생소한 환경과의 작용에서 일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단순히 '선교사 자질론'이라는 개념으로 일축시키는 것은 선교사의 중도 하차 문제의 핵심을 놓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 이미 파송을 받기까지는 각종 심리검사나 합숙생활, 다양한 훈련, 면접 등을 거쳐 위의 사항을 점검하고 위원회를 통해 파송 결정을 내린 경우에 선교사가 파송되기 때문이다. 이미 통계 자료를 통해 한국 개신교의 파송 선교사 수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밝혀졌지만, 사실 선교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점검에서 탈락하여 파송되지 못하는 선교사 지망생의 수를 조사할 수 있다면 과연 한국의 개신교가 해외 선교에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설사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자질이 부족한 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런 선교사를 파송한 당국의 신중하지 못한 결정에 대한 책임 혹은 경쟁적, 물량적인 선교 구조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지 이미 검증과 다양한 훈련을 거쳐 파송된 선교사에게만 모든 선교를 책임지게 것은 해외 선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에 대해 선교학자 문상철은 한국 개신교 선교 세계에 젊고 경험이 없는 선교사들을 돌볼, 경험 많고 노련한 베테랑 선교사들이 부족하고, 젊은 선교사들을 돌보고 지원하기 위한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11]

Ⅲ. 한국 개신교의 해외 선교 구조개선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 운동의 주체는 교단에서 파송을 받은 안수받은

11) Steve Sang-Cheol Moon, 「Facts and Factors of the Rapid Church Growth in Korea」,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5.

선교사가 아니다. 2006년 말을 기준했을 때 장로교 합동 측의 해외선교사가 1,835명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만, 한국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와 국제대학생선교회(CMI)가 원래 한 단체였고, 이 초교파 평신도 선교단체가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가 모두 2,024명임을 감안하면 현재 한국의 해외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주체는 교단 중심의 목회자 선교사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교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캠퍼스 선교단체, 자발적 선교단체, 혹은 이른바 파라처치(Para-Church)[12]로 불리는 선교단체이다.

한국 선교의 구조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교단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파송된 목회자 출신 선교사들은 선교 현지에서 무분별한 교단 신학을 전파하거나 타 교단 선교사와의 경쟁관계를 통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이른바 자비량 선교 혹은 개인적으로 선교 후원단체 혹은 교회를 섭외한 다음 독자적이지만 명목상 파라처치의 선교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의 보호나 통제 밖에 놓여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13] 이렇게 되면 극심한 경쟁체제에 내몰려 있는 교단 출신 선교사나,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오지에 버려지게 되는 일부 파라처치 선교사들이 피해를 보거나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것은 선교지에 여러 가지의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선교 사역 중도 포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지금껏 한국의 교단과 개 교회를 비롯한 선교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선교사를 배출하고 보내왔다. 선교학자 김상근의 표현대로, "숫자가 많으면 더 신앙적이라고 착시현상을 유도"하거나 그런 유행을 만들고 있는 한국 개신교 해외 선교의 책임자들은,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만 지나치게 열의를 보였던 것 같다. 선교사는 임무를 부여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12) 1988년부터 시작된 선교한국(Mission Korea) 집회를 통해 이 파라처치들의 선교가 매년 조직화되고 있다.

13) 김상근,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어디로 갈 것인가?」, 『대학과 선교』, 제13집, 2007.

선교지에 보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이고도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여행객으로서 있을 경우와 외형적으로 보이든 아니든 선교사로서 있을 때 경험하는 것이 다르고 도전 받는 상황 또한 다르다. 그러나 다음의 자료와 함께 한국 해외 선교의 이러한 구조가 과연 공정한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경쟁적이고 전략적으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해 온 결과 나타나는 이러한 부작용은 결국 선교사 당사자가 중도 하차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선교지에서 여전히 심각한 부작용을 끌어안은 채 그 삶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게 하기도 한다. 한국 기독교 선교단체들의 대표자(CEO)들을 대상으로 한국선교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선교의 약점으로는 지원체제 미흡 (45.0%)이 가장 두드러진 약점으로 꼽혔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풍부한 선교 인력과 역량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선교를 하는 면에 있어서 약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별히 지원체제가 부족하다는 선교지도자들의 의견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영역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원체제가 튼튼하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선교지 사역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한국선교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한국 선교의 시급한 과제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는 선교사 케어(25.0%)를 지도자 양성(21.4%), 선교사 훈련(16.1%), 연구 개발(18.8%), MK 교육(9.8%), 후원기반 확충(8.9%)보다 더 중요하게 꼽고 있다. 선교사 케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전문가에 의한 케어의 필요성(44.9%)이 동료 선교사, 본부, 후원 교회에 의한 케어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선교사들의 고충이 전문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적은 상담가, 정신의학자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선교를 위해 동원하고, 양성해야 할 필요를 말해 준다. 기존의 전문가들의 경우 선교사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교학적인 원리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들

은 선교지도자 및 선교학자들과 밀접하게 교류할 필요가 있다.[14]

본국에서 선교를 준비하고 연구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도 선교지에 도착하면서 구체화되고 확실해지는 것이 있다. 선교 주체에 관한 논의에 대해 세계교회협의회(WCC)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이론을 내기도 했지만, 선교사는 이미 선교지에서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초청받은 자이고, 그 초청에 응답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움직임과 변화에 대해 가장 먼저 노출되는 것이 선교사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과 상황을 본국의 선교 주체들과 공유하지 않는다면 결국 선교지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하나된 선교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의 형편과 본국의 이해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도 멀어 보인다. 선교당국인 한국의 교단이나 교회, 선교단체들조차 선교지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문화적, 물리적으로 먼 거리인 선교지와 본국간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신 움직임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영적 논의가 활발히 이어질 필요가 있다. 선교단체나 교단이 보내는 주체로서, 선교사는 보냄을 받은 주체로서, 그리고 선교지는 선교사를 받아주는 주체로서의 삼각형 구도 혹은 사각형 구도가 바람직한 선교 유형으로 논의되곤 한다.[15] 각각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관계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셋 혹은 네 주체들이 서로 대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등한 무게를 가지고 나아가지도 않고 있다. 상호교류와 상호 성장을 전제로 한 이 구도는 각각의 이해관계만을 염두에 두고 열린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무지하고 닫혀있는 것이다. 또는 전통적 유교문화의 영향에 따른 가족 중심적 태도나 한국 교회의 믿음체계가 일반적으로 보수적, 개인주의적, 종말적, 기복적 성향이

14) 한국선교연구원 홈페이지, http://krim.org/2010/sub5-broad.html
15) 강승삼, 『21세기 선교 길라잡이』, 생명의말씀사, 1998, 39쪽.

강하여 폐쇄적인 성격을 띠는 한국 개신교의 특징[16]도 선교의 주체들이 서로 대화하는데 장벽이 되고 있을 수 있다.

한국선교연구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선교사 케어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것에 관한 원인도 한국의 해외 선교 구조와의 연관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교단 파송 선교사들의 경쟁적인 선교나 파라처치 선교단체 파송 선교사들의 독자적인 선교도 한국의 해외 선교 구조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교를 교단의 교세 확장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극히 제국주의적인 사고이다. 선교지에 교회를 몇 개 짓고, 교인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선교의 결과를 논하는 식의 선교는, 이미 역사 속에서 비판받고 있는 16-17세기 최고조에 이른 유럽의 팽창주의, 제국주의적 식민 선교와 다를 바가 없다. 영화 "미션(Mission)"에는 1750년 당시 선교가 국가 정치와 결탁한 모습이 선교지에 어떻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지를 잘 그리고 있다. 식민지 정복을 두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토 경계 싸움이 파라과이와 브라질 부근에 살던 원주민들을 내쫓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 선교지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내는 모습은,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교황청의 유럽 정치 문제가 고스란히 중남미로 옮겨지는 결과를 드러냈다. 한국의 교단들 역시 경쟁적으로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모습은 유럽의 제국주의적인 식민 선교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둘째,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선교라고 할 때, 한국의 파라처치 선교단체 파송 선교사들의 독자적인 선교란 지엽적이고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해외 선교란 통시적인 역사의 현장 속에서 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계 정치의 흐름과 타문화의 변동이나, 윤리적인 감각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

16) 김홍관, 「분당샘물교회 아프간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한국 교회의 선교적 과제」, 『신학사상』, Vol.145, No.-2009.

문에 선교사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개신교 안에는, 해외 선교란 선교사의 몫이라는 개념이 팽배해 있음이 문제이다. 선교의 한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비롯해 복음서 전체에 걸쳐 "나를 보내신 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언급하며 의지하고 의식하고 계신다. 보내는 이가 없이 가는 선교는 개인의 차원을 벗어나기 어렵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이와 연결되고, 연합되며, 하나 되어 있어야 타문화권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임무와 사명에 집중할 수가 있다. 타문화권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는 선교지 입장에서 볼 때 여러 면에서 나그네와 같은 약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는 약자를 편애하시기 때문에 선교사 자신은 많은 은혜를 입고 보호와 인도에서 제외되지 않지만, 정작 하나님의 큰손으로 움직이고 진행되는 하나님 차원의 선교에는 동참하기 어려운 물리적, 정신적, 영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셋째, 선교란 하나님이라는 인격과 죄인이라는 한 인격의 만남이라고 설명할 때, 선교의 방법은 지극히 인격적이어야 한다. 선교주체가 선교지로 갈 때,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선교'라고 이름붙인 '사업' 혹은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계몽주의 이후로 전 세계의 가치관이 되어버린 결과 중심, 목적 중심의 세계관은 한국의 해외 선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듯하다.

엘살바도르의 내전을 다룬 영화 "이노센트 보이스(Innocent Voices, 2004)"에는 현지인들이 얼마나 따뜻한 인격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중남미 세계를 경제, 정치적인 잣대로만 보고, '제3세계'나 '저개발국가'라고 명명하며 선교의 대상국으로서 접근해 중남미에서 벌인 폭력적이고 무차별적인 선교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이제는 멈춰야 한다. 영화 "미션"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토 경계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중남미에 도착한 교황청 담당자가 농장의 아름다움

과 건축물의 아름다움에 감탄해 '에덴동산'이라고 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선교지를 단순히 대상으로만 여겼던 교황청의 생각이 열리며, 선교지를 다시 바라보아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가능성을 열어주는 장면이다.

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는 인격성을 잃은 지 오래다.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복음이 보수적인 근본주의 성격이 강했던 이유로 어쩌면 시작부터 한국의 해외 선교는 인격성을 상실한 채 지금까지 이어졌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빠져있는 결과주의적, 목적론적인 선교는 그만두어야 한다. 나아가 인격성을 배울 수 있는 '제3세계'에서 그들의 따뜻한 인격 안에 녹아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

넷째, 보내는 주체인 선교당국, 가는 주체인 선교사, 선교사를 받는 주체인 선교지라는 삼각 구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신학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작 달려만 가는 한국 개신교 해외 선교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보내는 주체로서의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읽어내고, 선교지의 상황 속에서 변화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읽어내고, 그것을 연결해줄 다리(bridge)역할을 할 수 있는 선교사가 주체적이고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큰 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날을 인문학적으로 상상하는 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일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가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 너무나 역사적, 문화적, 윤리적, 신학적 지식과 근거가 부족한 채로 해외 선교를 감행한 것이 지금의 물량주의적, 결과주의적 선교를 하게 한 또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하나님'이 빠진 선교 말이다.

Ⅳ. 라틴아메리카 해방 신학의 관점에서 가능한 선교

라틴아메리카 해방 신학의 창시자로 불리고 있는 구스타보 구티에레스

(Gustavo Gutierrez)는 “해방운동의 목표와 전망, 그리고 중요성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의미를 검토하고, 세계에 대한 교회의 선교와 사명을 구명하는 것”이라고 했다.[17] 불의하고 불평등한 사회가 복음의 요구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해방신학은, ‘구조적인 죄’에 대해 폭로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에서 ‘죄’는 개인적이거나 내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하지 않는다. 세상의 죄가 개인적인 죄를 조건지우게 되는 구조를 고려한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엔리께 두셀(Enrique Dussel)은 식민지 지배를 전일화된 세계체제의 ‘원죄’라고 부른다.[18] 이쯤에서 36년간의 일제 식민 지배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한 잔재가 한국 기독교 해외 선교의 방식과 구조에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교지를 대상화시키고, 선교 주체들 간에 상호 주체적인 의견을 주고받지 못하고 상대를 종속시켜 조종하고 부리려는 태도 등이 강도만 약하고 교묘히 드러나지 않을 뿐 식민지배의 양식과 다를 게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식민 지배를 옹호해 준 발전론에 따르면, 제3세계에 속하는 라틴아메리카는 저개발국가로서, 개발되기 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개발만 된다면 발전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이론이다. 이 이론이 바로 지금껏 유럽의 팽창주의적 식민주의 정책을 전제로 삼아 라틴아메리카를 개발했던 세계관이었다. 그러나 종속론이 등장해 이에 의문을 제기한다. 저개발 국가는 개발 국가에 종속해 있는 상태이지 아무리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고 개발한다 하더라도 저개발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내용이다.[19] 발전론이 유럽중심의 식민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한 이론이었다면, 종속론은 피식민지의 입장에서 식민 역사에 반기를 든 이론으로서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인 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17) 구스타보 구티에레스, 성염 옮김, 『해방신학』, 분도출판사, 2000, 159쪽.
18) 카렌 레바크, 이유선 옮김, 『정의에 대한 6가지 철학적 논쟁』, 간디서원, 2006, 225쪽.
19) 김춘호, 『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 분도출판사, 1990.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나온 종속론으로 인해 '해방'의 개념이 나왔다. 식민-피식민의 구조가 발전을 향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종속적인 것이라면, 그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가난은 체제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라는 것이다.

한국 개신교의 해외 선교가 전 지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것으로, 그리고 선교를 선교사 한 개인의 것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구조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동참할 기회와 특권을 놓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 선교이기는 하나, 선교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선교는 지엽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는 때로는 윤리적인 감각으로 결정해야할 문제, 역사적인 감각으로 반응해야 할 문제, 타문화를 충분히 알고 이해해야만 풀리는 문제, 신학적인 문제 등의 인생을 총괄하는 문제 앞에 늘 충분히 전문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의 특징 중 하나는, 구체적인 실천, 즉 해방을 위한 투쟁에 참여함으로써 시작한다는 것이다. 신의 명령에 응답하지 않고서 신을 알 수 없듯이, 정의에 대한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신을 알 수 없다. 실천을 통해 깨닫게 되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유럽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정의관이 놓치고 있는 정의에 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20] 신을 아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라틴 아메리카 해방 신학의 핵심이 곧 실천을 강조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불의한 사례에 대한 개별적인 공격으로 해방을 실천하는 것이라기보다 전체 체제나 사회질서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엘살바도르의 군사정권시절의 불의를 다룬 영화 "로메

20) 카렌 레바크, 이유선 옮김, 『정의에 대한 6가지 철학적 논쟁』, 간디서원, 2006.

로(Romero)"에서 가톨릭 신부들 중 폭력과 학살을 일삼는 국가에 대항하는 이들이 묘사된다. 이들의 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다. "저는 해방신학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교회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가톨릭 사제직을 통해 만난 하나님이 이들을 국가를 대항하도록 이끌었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제도 속에 이루고자 삶으로 실천한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자인 호세 미란다(Jose Miranda)는 '정의를 실현시킴으로써만 신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담론인 '정의'에 관해 논할 때, 한국 개신교의 해외 선교 구조는 다음 몇 가지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해외 선교를 계량화하여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개신교 해외 선교 역사 100년이니, 파송 선교사 숫자가 세계 몇 위이니, 선교지에 개척한 교회가 몇 개이니, 성도 수가 몇 명이니 등의 수사법을 쓰면서 말이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개신교를 감동시키고 선교 역량을 동원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심과 직접 닿아 있는지는 의문이다. '선교지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가?', '우리의 해외 선교 방식은 정의로운가?', '타문화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선교지의 가난과 억압에 대해 한국 개신교 선교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해외 선교의 구조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고 있는가?', '전 지구적인 해외 선교의 장에서 한국 개신교 해외 선교가 맡은 바를 이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는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 등등의 해외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관련된 논의의 장은 어디에서 기대해야 하는가?

둘째, 보내는 선교에만 관심을 두고 그 다음은 선교사에게만 책임을 돌린 경향이 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매일 새벽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임무와 임기를 확인하며 의지하셨지 독단적으로 혼자 계시지

않았다. '선교사 파송'이란 일회적이고 물리적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매일 매일 보내는 일의 연속인 계속적인 사건이다. 매일 매일 보내주는 주체가 없으면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 선교사 중에 중도하차 비율이 높은 것도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와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위에서 언급했듯이 100년 이상의 해외 선교 역사의 결과 한국 개신교 해외 선교의 가장 취약점으로 조사된 것은 '선교사 케어' 문제였다.

유럽의 제국주의적인 식민 선교로 인해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른 것은 '선교지'의 입장에 관해서이다. 그래서 '신대륙 발견' 등과 같은 유럽중심의 역사서술을 비판하고 대항해 라틴아메리카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고 하는 엔리께 두셀[21]과 같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역사학자를 필두로, 과거 한 때 피선교지였던 라틴아메리카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외 선교의 구조를 이해할 때 위에서 언급했듯이 세 개(혹은 네 개)의 선교 주체에 해당하는 파송 교회, 선교사, 선교지의 구도에서, 그동안 제국주의적인 선교라고 비판할 때 주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파송 교회 혹은 교단, 선교단체 등이었다. 그리고 선교지라는 주체에 대해서는 '대상화되거나 객체화'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선교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이제는, 아직 잘 논의되지 않고 있는 해외 선교의 또 다른 주체인 '선교사'에 관해 같은 비중으로 논의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 삼각 혹은 사각 구도가 동등한 주체로 움직일 때 거대한 삼각형 혹은 사각형은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움직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개신교 교단이나 교회, 선교단체 등의 선교 주체들이 선교사를 보

21) 엔리께 두셀(Enrique Dussel), *A History of the church in Latin America colonialism to liberation(1492-1979)*, Eerdmans Publishing, 1981.

내놓고 방치한 결과 이제 '선교사 케어'라는 개념으로 선교사에 관한 관심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교사 관리'라든지 '선교사 케어'라는 표현이나 개념 또한 선교사를 관리나 돌봄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개신교 해외 선교가 '선교사 케어'에 취약하다고 나타났다는 것은, 한국 개신교 해외 선교의 구조에서 의사결정 방법에 기여 혹은 참여하는 선교사의 비중이 그만큼 낮다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대상화하여 돌보려 하기보다(선교사는 하나님이 직접 돌보신다!), 그들이 선교지에서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곳에 대해, 그 방법에 대해 말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보내는(sending) 주체로서의 선교당국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조종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받는(receiving) 주체로서의 선교지의 입장에서 현지인들의 소리만 들으려 할 게 아니라, 가는(going) 주체인 선교사들로부터도 적극적으로 들으려는 자세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지리,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 개신교는 해외 선교를 국내만이 아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세계적인 현상의 하나로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외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는 사건은 세계 역사와의 관련 속에서 일어난 것이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이룩한 성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한국의 개신교 해외 선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그리고 다른 나라의 개신교 해외 선교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한국 개신교 해외 선교의 장점과 특징에 관해 객관적인 논의가 계속될 때, 한국 개신교 해외 선교 구조의 문제도 새롭게 보이고, 지엽적으로 접근하려는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며

한국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일지 몰라도 선교를 잘하는 나라인가에 관해서 질문해 봐야한다. 선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 삶으로 품어내는 것일진대, 선교를 잘한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실천하며 사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할 때 원하는 결과도 함께 오는 것이고, 목적보다는 동기와 이유가 분명할 때 원하는 목적도 함께 성취되는 관계 말이다.

디트리히 본회퍼가 보여준 신학은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삶의 실천이었다. 사실, 본회퍼에 대한 나치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미국으로 망명할 수도 있었다. 개신교 신학자이자 유니온 신학교 교수로 일하던 라인홀드 니버가 신학 교수 자리를 마련한 뒤 초대장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회퍼는 "독일 국민들과 고난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났을 때 독일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면서 이를 거부했다.[22]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중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하였다가 발각되어 2년간의 감옥생활 후 종전 직전에 교수형으로 처형되었다. 신앙의 실천으로 점철된 그의 삶은 지식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았기에 생명력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으로도 유명한 영화 '미션'에 나오는 가브리엘(Gabriel) 신부, 엘살바도르의 정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로메로'에 나오는 오스칼 로메로(Oscar Romero) 신부, 스페인의 잔혹한 라틴아메리카 정복을 폭로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보고서[23]를 쓴 바르톨로메 데 라스 까사스(Bartolome de las Casas)신부 등을 비롯해 수많은 하나님의 선교

22) Devine, Mark, 『본회퍼의 삶과 신학』, 한스컨텐츠, 2007.
23) Casas, Bartolome de las, 『인디아스 파괴에 관한 간략한 보고서』, 북스페인, 2007.

사들이 선교지에 보내졌고 지금도 보내지고 있다. 해외 선교의 삼각형 혹은 사각형의 구조가 억압이나 불의에 빠지지 않고 공정해지기 위해선 그들의 경험을 들으며 공유해야 하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말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주의 생태 신학자이자 사회 윤리학자인 구미정은 '따로 또 같이' 서로의 영혼을 완성시켜 가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해외 선교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24]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다.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잘 믿어 제대로 실천하며 살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들려주는 말씀이다. 신약 성경 중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은 여러 문제가 있었던 당시의 교회들에게 했던 것이다. 가톨릭 신부 김웅태는 선교란 '복음화되는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선교사 자신들도 복음화되는 것'이라고 했다.[25] 보내는 선교의 주체인 선교 당국, 가는 선교의 주체인 선교사, 선교사를 받는 주체인 선교지가 모두 서로를 통해 계시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에 대해 배워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큰 손으로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복음화되어 가는 이야기가 쉼 없이 들려지길 바라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바램일까.

---

24) 구미정, 「포르노 혹은 에로스: 몽골 선교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한국여성신학』, 2004 겨울, 제59호.

25) 김웅태, 『선교의 역사와 개념』,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3, 293쪽.

〈참고 문헌〉

Casas, Bartolome de las,『인디아스 파괴에 관한 간략한 보고서』, 북스페인, 2007.

Devine, Mark,『본회퍼의 삶과 신학』, 한스컨텐츠, 2007.

Enrique Dussel,『A History of the church in Latin America colonialism to liberation (1492-1979)』,Eerdmans Publishing, 1981.

Gustavo Gutierrez, 성염 옮김,『해방신학』, 분도출판사, 2000.

Karen Lebacqz, 이유선 옮김,『정의에 대한 6가지 철학적 논쟁』, 간디서원, 2006.

Steve Sang-Cheol Moon,「Facts and Factors of the Rapid Church Growth in Korea」,『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5.

구미정,「포르노 혹은 에로스: 몽골 선교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한국여성신학』 2004 겨울, 제59호.

강승삼,『21세기 선교 길라잡이』, 생명의 말씀사, 1998.

김상근,「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어디로 갈 것인가?」,『대학과 선교』, 제13집, 2007.

김웅태,『선교의 역사와 개혐』,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3.

김춘호,『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 분도출판사, 1990.

김홍관,「분당샘물교회 아프간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한국 교회의 선교적 과제」,『신학사상』, Vol.145, No.-2009.

한국선교연구원 홈페이지, http://krim.org/2010/sub5-broad.html

한국선교정보원,

http://cafe.naver.com/kiimorg.cafe?iframe_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95

기독일보, http://dc.christianitydaily.com/view.htm?code=oc&id=184713

〈Abstract〉

A Search for a Fair Mission

-Focussing on the structure of the world mission

Lee, You-Jean

Korea has been the second country in the world that sends missionaries. Since Korean church started to send a missionary to Je-ju Island in 1907, Korean world mission history has passed more than 100 years. But the Korean world mission has been criticized as a competitive church individualist mission, exclusive conversional mission and aggressive imperialistic mission. Actually Korean world mission caused social issues such as 'Kim Sun-il case in iraq and various problems including tacit issues.

To discuss recent Korean world miss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structure of world mission. Normally there are 3 bodies to do world mission, which are church(or mission agency) as a sending body, mission field as a receiving body and missionary as a going body. To operate freely and powerfully this missionary structure, it is obvious to have equal right to decide, participate or evaluate world mission as a individual body. Nevertheless it seems that only the church(or mission agency) as a sending body has too much power or weight comparing to mission field as a receiving body and missionary as a going body.

The position of these 3 individual bodies is so different from each other because of a physical distances, cultural differences, different perspectives, different vision, ect. If this triangle structure could function with open-minded conversation, equal right to decide and balance, world mission could operate more fairly and richly.

This paper raises a question of this unfair or unequal reality of Korean world mission even though churches(or mission agencies) have the theory of this triangle structure for world mission. And also it suggests to have conversation openly as an individual body with equally balanced right to speak and decide. This is not only to do better world mission but also to learn of the way of the Creator for world mission and to participate on it.

Key words: world mission, mission structure, sending body, receiving body, going body